야간관광조명시설 염분·해풍에 고장·훼손

제주시 지역 3500여개… 정비에 매년 3억 소요
비용절감·환경 차원 해수전지 활용 제시 '눈길'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 및 야간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해 설치된 제주시 관내 야간경관조명시설이 염분·해풍 등에 취약, 매년 3억원 안팎의 정비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용담해안도로와 탑동 일대 등 동 지역과 애월읍 등에 야간경관조명 시설 3500여개 설치돼 있다.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역인데다 관광지 특성상 야간경관조명은 대부분 해안도로변을 중심으로 설치되면서 염분 및 해풍에 의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 7월에도 대표적 관광명소인 용담~도두 해안도로 등에 설치됐던 소형 경관등 300여개를 철거하고 새롭게 LED투광등 30개를 설치했다. 갯바위를 중심으로 부착돼있던 경관등이 고장에다 부식으로 제기능을 못하고 미관을 저해하면서 시설물을 새로 정비했다.

이에앞서 시는 상반기에 예산 1억9000만원을 투입해 삼양해수욕장 경관조명을 LED로 교체한 것을 비롯 용연 및 용두암 주변 노후경관조명 시설물 일제 정비 등을 실시했다.

시는 야간경관조명 시설물 정비를 위해 올해 예산 3억원을 편성, 지속적인 정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예산 2억7000만원, 2019년엔 3억7000만원이 정비예산으로 투입됐다.

시는 이와관련 제주테크노파크(JTP)와 함께 야간경관조명을 해수전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주시형 뉴딜정책의 하나로 선정 눈길을 끌고 있다.

매년 수억 원의 정비예산이 소요되는데다, 잦은 고장과 훼손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야간경관조명에 있는 전지는 환경오염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해수전지를 활용하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 절약과 함께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 편의와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설치한 야간경관조명 시설이 고장과 부식 등으로 파손되는 일이 잦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며 "관광명소가 빛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초고령화사회 앞두고 공적돌봄 강화
서귀포시, 9월까지 독거노인 실태조사 맞춤형 지원

서귀포시가 날로 심화되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20% 이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돌봄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 내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부터 오는 9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사요원 17명을 오는 6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만 65세 이상 1인가구에 조사요원이 방문해 주거상태, 사회관계,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대상은 4512명으로 기존 돌봄 어르신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도움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 대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안부 확인, 생활교육, 사회참여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택 내 장비 설치,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등 어르신 상황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서귀포시지역 노인인구는 3만5434명으로 19.5%를 보이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7개 읍면동 가운데 남원읍(24.3%), 성산읍(24.2%), 표선면22.0%), 송산동(24.6%), 중앙동(24.5%) 등 12개 읍면동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제주시 노인인구는 7만720명으로 14.4%를 차지했다.

백금탁기자

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
제주시, 내달 24일까지 진행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장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가 오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이뤄진다.

제주시는 지역 내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실태와 경제·건강 상태, 주거환경, 사회적 관계, 복지 욕구 등의 사항을 파악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단독가구로 생활하는 장년층 중 올해 하반기 만 50세에 해당하는 출생자 등이다.

조사는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맞춤형복지 담당 공무원과 지역 실정에 밝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동네 삼촌 돌보미 등의 지역사회 주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 생계 곤란 중증질환자, 은둔형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공적 급여 및 민간자원 연계와 함께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사회적 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반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건강음료 지원과 일자리 연결 등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제주바다 불청객 파래 수거작업 3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해안에서 제주동부해안 불청객인 파래 수거를 위해 행정당국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서귀포지역 토지거래 매년 감소 추세
상반기 동지역 필지·면적 급감… 제주시와 대조
제2공항 예정지 발표된 2015년 절반 수준 머물러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졌던 서귀포지역 토지거래량이 한풀 꺾이며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3일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누계는 이하 생략)에 서귀포지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량은 1만623필지·1123만1000㎡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의 1만662필지·1859만4000㎡에 비해 각각 39필지(-0.37%)·736만3000㎡(-39.6%) 감소했다. 특히 동지역은 지난해 6월 6337건·1166만5000㎡에서 올해 6월에는 5070필지·256만4000㎡로 필지는 20%, 면적은 78%가량씩 줄었다.

성산읍이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발표된 2015년 직후와 비교하면, 올해 서귀포지역 토지거래량은 예년에 비해 큰 격차를 보였다. 6년 전인 2015년 6월 토지거래량 1만5312필지·2395만3000㎡에 견줘 올 상반기에는 4801필지(-30.6%)·면적 1272만2000㎡(-53.1%) 급감했다.

이 기간에 이뤄진 연말 기준 서귀포지역의 토지거래량은 ▷2015년 3만4812필지·5147만1000㎡ ▷2016년 3만4613필지·4293만3000㎡ ▷2017년 3만1138필지·3297만1000㎡ ▷2018년 2만8008필지·2563만5000㎡ ▷2019년 2만3066필지·2787만6000㎡ ▷2020년 1만9867필지·2994만5000㎡ 등이다.

반면 올 상반기 제주시 토지거래량은 2만411필지·1429만8000㎡로 지난해 1만4342필지·1029만1000㎡보다 필지는 42.3%, 면적은 38.9% 증가했다.

백금탁기자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행위 집중단속"
서귀포시 8월 한달 동안

서귀포시가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8월 한달간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오전 1~4시)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한 사업용 차량은 승용차 1167대, 승합차 151대, 화물차 546대, 특수차 123대 등 모두 1987대다.

시는 이 기간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벌여 37건을 적발하고 29건(계도 24, 타시도 이첩 5)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8건에 대해 과징금 45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과 관련해 주택가 이면도로, 공한지, 공원 주변 등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적발 차량에 대해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차종에 따라 과징금(5만~20만원) 등을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전세버스나 타 지역에서 입도한 화물차를 배려해 천지연 공영주차장, 천제연 대형주차장,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자구리 공영주차장,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등 5곳을 임시 차고지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중정로91번길 전선 지중화사업 본격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동측 945m 구간 대상

서귀포시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동측 중정로91번길의 945m 구간에 대해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29억원이 투입되며, 서귀포시와 한전·통신사가 각각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한다. 도로포장 복구는 100% 시에서 담당한다.

시는 지난해 8억원과 올해 6억3000만원을 확보해 한전·통신사와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6월 굴착을 시작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구간은 중정로91번길 580m와 인접도로 365m 등으로 시장인근 시내 중심지로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이에 시는 교통이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구간을 7개 공구로 나눠 공구별로 순차적으로 도로굴착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이중굴착 방지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이번 지중화사업과 병행해 낡은 상수도관 교체 공사와 올레시장 아케이드 추가 설치(75m)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동홍5단지 진입도로(220m)와 성산읍 한도로(300m) 구간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완료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제주대 와이덱스 보청기 CGV 광양사거리 화북
상담예약 064)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 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하나약국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히트예감 • 윈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황금향대조품종(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갱신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히트예감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대조품종 - 제라몬(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사라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